

재정지원제한대학 22개교 선정... 국장·학자금대출 제한

극동대·강원관광대 등 지정 2023학년도 수험생 주의 요구 인하대·성신여대 등 13개교 일반재정지원 추가 '기사회생'

학생 총원율과 졸업생 취업률이 낮은 22개 대학이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서 배제된다. 특히 내년에 이들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경우 정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에도 제약이 따르면서 수험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인하대·성신여대 등 13개교는 교육부 일반재정지원 대학에 추가돼 기사회생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총 276개교 명단을 1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여건과 성과 등 주요 정량 지표를 활용해 절대평가 방식에 따라 지표별 최소기준 달성 여부를 평가했다.

다만, 학령인구 급감 및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해 신입생·재학생 총원율, 졸업

〈2023학년도 재정지원 제한 대학 명단〉

구분	정부재정지원 사업 (특수목적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유형 I	유형 II	일반	취업후 상환
재정지원제한 대학	유형 I -일반대학·산업대학(4개교) 극동대, 대구예대, 서울한영대, 한국침례신학대 -전문대학(7개교) 동의과학대, 선린대, 수원과학대, 신안산대, 영남외대, 전주기전대학, 창원문성대.	-	신·편입생 지원제한	신·편입생 50%제한	-
	유형 II -일반대학·산업대학(5개교) 경주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전문대학(6개교) 강원관광대, 고구려대, 광양보건대, 김포대, 웅지세무대, 장안대	신·편입생 100% 지원제한	-	신·편입생 100% 지원제한	-

/교육부

입생 취업률 등 3개 지표는 한시적으로 최소기준을 조정해 권역별(수도권·비수도권) 하위 20% 대학만 지표를 미충족한 것으로 간주했다.

예컨대, 일반대 신입생 총원율은 97%를 넘기지 못하면 하한선인 하위 7%에 해당한다. 이번 평가에서는 수도권 97%, 비수도권 80.8%로 하한선을 완화했다. 여기에 더해 대학 특성상 신

입생 총원 등에 어려움을 겪는 종교·예체능계 대학은 하한선 기준치의 90%를 적용해 다소 완화했다. 내년 평가부터는 이를 폐지해 다른 대학과 같은 기준(100%)으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 미충족지표 수가 3개인 극동대·대구예술대·서울한영대·한국침례신학대와 동의과학대·선린대·수원과학대·신안산대·영남외국어대·전주기전

대·창원문성대 등 11개 대학이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I 로 지정됐다. 2023학년도 이들 대학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학자금 대출도 50%로 제한된다.

미충족지표 4개 이상 대학인 유형 II에는 경주대·서울기독대·신경대·제주국제대·한국국제대·강원관광대·고구려대·광양보건대·김포대·웅지세무대·장안대 등 11개 대학이 지정돼 역시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지원이 배제되고, 내년 신·편입생들은 국가장학금은 물론 학자금 대출 대상에서 모두 제외된다.

지난해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됐던 17개교 중 예원예술대·금강대·대덕대·두원공과대·서라벌대 5개교는 2023학년도부터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해제돼 학생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가능해진다. 이들 대학은 다만,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는 2025년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아울러 일반재정지원대학 13곳을 추가 선정한 가결과를 발표, 인하대와 성신여대가 구제를 받게 됐다.

이번에 구제된 대학은 성신여대·인하대·추계예대·군산대·동양대·중원대 등 일반대 6곳, 계원예대·동아방송예술대·기독교간호대·성운대·세경대·송곡대·호산대 등 전문대 7곳이다.

교육부는 3년 단위로 대학 기본역량진단을 통해 대학 교육여건과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응한 혁신 전략을 평가, 이를 통과한 대학에 혁신사업비(일반재정지원)를 지원하는데, 탈락하면 연간 40억~50억원 규모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지난해 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한 52개 대학에서 중 일반대인 성신여대·인하대·추계예대·군산대·동양대·중원대 6개교가, 계원예대·동아방송예술대·기독교간호대·성운대·세경대·송곡대·호산대 7개교 등 총 13교가 구제됐다. 이들 대학은 일반대의 경우 학교당 평균 30억원, 전문대는 2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학들은 오는 2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최종 결과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말 확정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서울시, 외식창업 꿈꾸는 청년 지원 팔 걷어 “오성산 관광 개발 아이디어 찾습니다”

건대역 ‘청년국 비즈니스센터’ 오픈 오픈키친·촬영 스튜디오 등 마련

서울시는 이달 18일 외식업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전용 보육 공간 ‘청년국 비즈니스센터’의 문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센터는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건대입구역 ‘건대맛의거리’ 인근(광진구 자양동 227-17)에 자리해 있다. 연면적 259㎡ 규모로 ▲조리 실습을 위한 오픈키친 ▲맛 테스트 및 커뮤니티 공간 ▲창업보육공간 ▲푸드 촬영을 위한 스튜디오를 갖추고 있다.

센터는 기수별로 창업 주제를 정해 심층적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청년국 비즈니스센터에 마련된 공유주방 /서울시

하고, 현장체험을 통해 실전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한다.

앞서 시는 지난달 ‘공유주방 배달창업’을 주제로 1기 청년 예비창업자 15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8월까지 센터에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기간 중 신호섭 셰프, ‘오늘에김밥’ 문영일 대표 특강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시는 전했다.

센터는 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전문가 브랜딩과 디자인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전문가가 사업계획서를 평가하고 피드백을 주는 ‘모의 투자설명(IR) 데모데이’, 컨설팅 결과로 탄생한 시제품에 대한 검증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맛 테스트 대회’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수요자가 민간에서 운영 중인 배달형 공유주방에서 실습을 희망할 경우 단기 임대, 보증금 면제 등 실질적인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hik1@

인천공항공사, 6개월간 공모전 진행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성산 절토지역을 인천공항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오성산 관광자원화 컨셉 및 아이디어 공모’를 시행한다.

용유도의 주봉인 오성산은 해발 172m였으나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인천공항 2단계 건설시 항공기 안전을 위해 고도제한(52m) 이하로 절토됐으며 면적은 810,000㎡에 달한다. 공사는 인천시와 협의를 통해 지난 2021년 8월 오성산 공원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공사는 총 810,000㎡ 중 200,000㎡ 면적에 지역주민을 위한 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며, 나머지

610,000㎡ 절토지역을 공항과 연계해 환승객 및 외국인 관광객을 모을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창의적인 제안 등을 적극 활용해 오성산 개발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11월 15일(화)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되며, 공모분야는 참가자격 및 제안서 수준이 상이한 컨셉 공모 및 아이디어 공모 2개 분야로 구분된다. 공모 참가자는 1개 분야에만 참여가 가능하다.

참가 분야에 따라 제출서류·제출방식·평가기준 등이 상이하므로 공모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 및 공고지침서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인천=김정근 기자 mirex@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남윤철 교사 장학금’ 수여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는 ‘제8회 남윤철 장학금’ 수여식을 16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남윤철 장학금’은 교사의 사명과 제자 사랑을 몸소 실천한 고(故) 남윤철 교사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뜻 깊은 장학제이다.

올해로 제8기를 맞은 남윤철 교사 장학금은 한국어교육학과 국내외 재학생 10명에게 전달됐다.

/신하은 기자 godhe@

서울시 선유고가차도 양화대교 방면 철거

내일부터 차량 전면통제... 11월 완료

서울시는 오는 19일부터 선유고가차도 양화대교방면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한다고 17일 밝혔다.

선유고가차도 양화대교방면을 이용하는 시민은 평면교차로가 조성된 경인고속도로 입구 교차로 1~2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으면 된다. 철거 공사는 11월 완료될 예정이다.

시는 공사기간 교통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이 구간을 통과하는 차량은 주변도로로 우회 통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선유고가차도는 양평동3가 및 당산동 3-4가 사이를 가로막아 지역 간 단절을 초래하고, 일대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 주민들이 철거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시설이다. 시는 고가차도 철거 후 도로 체계를 평면 교차로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5월 18일 (수)

음력: 4월 18일

수도권 날씨

15~26°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해돋이 / 05:21 | 해질 / 19:37

연천 12/25, 동두천 13/26, 가평 10/25, 파주 12/24, 서울 15/26, 양평 12/27, 수원 16/24, 용인 16/24, 평택 12/26

백령도 13/18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 WHO “북한서 코로나19 빠르게 확산 위험… 즉각 조치 취해야”
- ▲ 1분기 태국 경제성장률 전기 대비 1.1% ↑ “코로나 규제 완화” /사진 뉴스스

- ▲ 한·중 외교 통화... ‘협력 강화’ 기조 속 “신냉전 경계”
- ▲ 美 경기침체 대비 해야 할 일?... 현금 확보·꾸준한 투자 등



- ▲ 유엔, 리비아 트리폴리의 무장세력간 전투에 “우려”
- ▲ 위안화 기준치 1달러=6.7854위안 ... 0.03% 절상 /사진 뉴스스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